



윤용탁 총장

탐라대학교(총장 윤용탁)는 2001년부터 정보출판미디어학부를 신설한다고 지난 10월 밝혔다. 정보출판미디어학부는 2학년 과정부터 출판미디어학과, 소프트웨어학과 등의 세부전공으로 나뉜다. 특히 출판미디어학과는 국내외의 출판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탐라대학교는 지난 10월 11일 세종문화회관 VIP실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와 산학협동조인식을 열었다.

— 정보출판미디어학부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4년제 대학에 출판관련학과를 설치하는 것은 출판업계의 오랜 염원이었다. 우리 출판문화가 더 한층 발전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신설해 출판 전문인력을 양성하

“산학협동 통해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할 터”

정보출판미디어학부 신설하는 탐라대 윤용탁 총장

는 것이 시급하다는 출판계의 인식에 공감했다.”

— 기존의 전문대학교, 전문대학원과 차별되는 점은 무엇인가.

“출판문화는 기술만을 갖췄다고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폭넓은 교양은 물론 문화전반에 대한 소양이나 감각을 갖췄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2년제 전문대학과 대학원은 이와 같은 전반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 우리 대학은 이런 단점을 보완해 4년이라는 교육기간에 체계적이고 실무적인 커리큘럼과 현장학습을 통해 학생들을 집중 교육할 것이다.”

—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산학특별협정을 맺었는데, 어떤 식으로 협력할 계획인가.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특별협정을 체결해 향후 10년 동안 출판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과 현장실습, 장학 및 취업추진을 위한 협력, 최신 출판관련 정보의 공유 등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 졸업생의 취업을 위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가.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다.

“졸업생의 취업은 앞으로 4년 후의 문제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애초에 우리가 출판미디어학 전공을 개설한 이유는 좀더 전문적인 출판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였다. 선진적인 출판미디어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이 배출된다면 출판업계에서 흡수가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 탐라대학교는 제주도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출판관련 기반시설은 서울에 집중돼 있어 학생들의 현장실습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듯하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행히 양 기관의 산학협정에 입각해 출판관련 기자재를 협조받기로 했다. 협정대로 모든 것이 이뤄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내의 신문방송국을 비롯해 제주도 내에도 다양한 출판사와 신문잡지사들이 왕성한 출판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장실습에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 최갑수 기자

〈일본학 총서〉 시리즈 1차분 50권 완간돼

주로 일본인이 쓴 일본에 관한 책 소개해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소장 지명관)가 기획, 지난 95년부터 출간한 〈일본학 총서〉 시리즈가 1차분 50권을 완간했다. 이 시리즈의 특징은 ‘일본인이 쓴 일본에 관한 책’이라는 점. 가토 슈이치, 마루야마 마사오 등에서 사카모토 요시카즈, 요시미 요시아키 등에 이르기까지 현대 일본의 대표적 지식인들이 필진으로 총망라됐다.

1차분 50권은 크게 네부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무교회주의자 우치무라 간조》(스즈키 노리히사, 김진만), 《일본의 불교》(와타나베 쇼코, 김진만) 등에서 볼 수 있듯 일본인의 다양한 정신체계를 분석한 책들이다. 쓰다 소키치의 《중국 사상과 일본 사상》(남기학)처럼 일본문화의 독자 발전론을 주장한 책도 있어 눈길을 끈다.

두번째는 서구문화 혹은 외국문화와 일본문화를 비교분석한 책들이다. 《전후 일본의 대중문화》(쓰루미 슌스케, 김문환), 《다도와 일본의 미》(야나기 무네요시, 김승희) 등은 일본인들의 생활 속 의식구조를 지은이

들의 체험과 함께 설명하고 있어 흥미롭다.

세번째는 《근대 일본 정치사》(오카 요시타케, 장인성), 《일본 근대화론》(라이샤워, 이광석) 등 근·현대에 걸친 일본의 정치발전 과정을 다룬 책. 특히 《일본군 군대위안부》(요시미 요시아키, 이규태)는 ‘정신대’에 대한 일본학자들의 진보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네번째는 문학과 언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본 사회를 분석한 책들이다. 《소설의 방법》(오에 겐자부로, 노영희 외), 《폭풍우》(시마자키 도순, 노영희), 《일본어의 근원》(오노 스스무, 윤해순) 등이 있다. 《재일동포작가 단편선》(양석일 외, 이한창)과 《죽은 자가 남긴 것》(이희성, 김숙자) 등은 열악한 사회환경에 놓인 재일동포들의 실상을 묘사한 작품들이다. — 최갑수 기자

